

## [여성칼럼] 당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기회

김현정 <빛과소금> 기자 / 페이지수: 2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었다. 무슨 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세 자녀. 다섯 식구로 이루어진 단란한 가정이다. 그러나 막내아들 현수는 여느 여덟 살 바기 들처럼 새로 산 가방을 메 보며 학교에 간다는 기쁨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 누워 있는 아빠 때문에 우울하기만 하단다. “아빠가요 너무 아프시니까… 빨리 나오셔서 옛날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빠, 힘내세요…” 울먹울먹 목소리만 들렸지만 코끝이 빨개져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의 얼굴이 그려졌다.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2년째 앓아누운 아버지, 심한 빈혈과 저혈압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어머니. 월세 34만원을 1년 가까이 밀린 까닭에 얼마 전부터 방을 빼라는 주인의 독촉이 심해졌는데, 방 보증금을 미리 받아 병원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었다. “일주일에 세 번씩 혈액 투석을 해야 해요. 제 신장을 이식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제 건강상 문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친 엄마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잔뜩 묻어난다.

### “Yes”와 “No”의 의미

혈액 투석, 장기 이식… 저만큼 멀어져가던 그들,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다시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앉는다. 지난해 12월, ‘나눔과 섬김’이라는 매뉴얼의 첫 번째 주제로 장기기증을 택했었다. 우선, 취재를 하면서 접했던 기사의 한 부분을 얘기해야겠다.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기에. 그것은 백혈병에 걸린 한 십대 소녀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녀의 병명이 밝혀지자 의료진은 곧바로 골수를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등록되어 있는 골수 기증자 중에 소녀의 골수와 맞는 청년을 찾을 수 있었고 그에게 연락을 했단다.

그러나 며칠 뒤 청년은 가족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골수 기증을 거절했다. 그럼, 소녀는? 투병생활을 하다가 가족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늘나라로 갔다. 방법이 있는데도 딸을 살릴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Yes” 또는 “No”로 누군가의 생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름끼치면서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사실이었다. 당신에게 누군가 기증을 부탁한다면 “Yes”하겠는가, “No”하겠는가? 아니 그 이전에 기증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기증 등록을 한 후에도 실제로 이식 수술을 요청하면 뒤로 물러서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골수를 기증한 한 형제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 장기이식은 거룩한 기회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 사랑, 진정한 나눔 등을 깨닫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하고 성스러운 축복의 기회인 것이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난 권사님 한 분은 “내 간과 꼭 맞는 간이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이식 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세상 어디엔가 나의 장기와 꼭 맞는 장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새삼

목상케 했다. 그 손으로 지어진 모든 것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까닭과 섭리가 있는 것이다.

### 겨자씨 용기, 겨자씨 사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다. 그분이 허락하신 거룩한 기회를 통해 참된 사랑과 놀라운 창조 섭리를 느껴봄이 어떨까. 솔직히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겨자씨만한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사를 결론지었던 본인이지만, 막상 기증 등록을 하려 하니 상당히 겁이 났었다. 사후에 할 수 있는 각막 기증과 시신 기증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했는데, 생전에 해야 하는 골수와 신장 기증을 하려니 왜 그리 망설여지던지...

그러나 새 봄이 올 때쯤, 겨자씨 용기로 하늘만큼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를 잡으러 가야겠다.

\* 출처 : 은누리신문